

# JTS

VOL. 128

2017.1112



##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COVER STORY

수자타아카데미 인도 스텝들(왼쪽부터 디네스, 수딜, 이짓)

디네스는 병원 팀원으로 컴퓨터 문서를 잘 다루고, 태권도, 미술, 음악 등 팔방미인입니다.

수딜은 학교 미술선생님으로 미술과 음악에 뛰어나며 미술 전문교사로 활약하게 되면서 1주일에 한시간씩 전체 학년 미술수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짓은 유치원 부팀장으로 태권도를 잘해서 수업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 부팀장을 맡아 팀장인 반제이지와 유치원으로 봉사하는 중학교이상 아이들과 유치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Contents

###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 병원 \_ 이정미

인도 활동 소식

#### 11 틈새 이야기

#### 12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산 넘고 물 건너 오지마을에 가다 \_ 김형준

필리핀 활동 소식

#### 21 긴급구호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난민, 로힝야족

### 국내소식

#### 27 함께 하는 사람들

애광원 나들이

국내 활동 소식

#### 34 나눔회원소식

후원인 이야기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7. 12. 6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네티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윤민아, 이주용, 김기연, 권지연, 김영숙, 신지원, 김옥희, 유주영, 임양호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 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 해외소식 인도

나마스떼, 동게스와리



2  
2017 NOV • DEC



##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 병원



이동진료는 병원까지 멀어서 오지 못 하는 사람들과 돈이 없어 일반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동게스와리 주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글쓴이 인도JTS \_ 이정미\_병원팀 활동가





약자지킬 정신없는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

### 구급차 앞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이 되면 마을로 이동 진료를 갑니다. 약품 상자의 약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약들은 채워 넣고 의자, 책상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물(위생에 관한 영상)이 든 노트북을 챙겨서 이동 진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낡은 구급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울퉁불퉁 산길을 돌고 돌아 먼 마을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병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마을을 가기도 합니다.

“

달리다 보면 또  
어디선가 튀어나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합니다.

.....

이동 진료를 갈 때마다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큰 즐거움입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 가까운 세 마을을 제외하고 산을 기둥 삼아 모여 있는 12개 마을을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지에서도 들쭉거리는 구급차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면 물건들은 흔들리고 몸은 공중 부양을 시도하며 위아래로 춤을 춥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잉~~~’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서너 명의 아이들, 많게는 열 명 가까이 모여 있는 아이들이 “따따”(안녕)하며 손 흔들고, 달리고, 웃고, 소리를 지릅니다. 달리다 보면 또 어디선가 튀어나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합니다. 한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많게는 대 여섯 번씩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동 진료를 갈 때마다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큰 즐거움입니다.







### 아이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

마을에 도착하고 구급차가 서면 아이들이 앞으로 모여듭니다. 인사하기 전에는 주뻗 주뻗하며 다가오지 않다가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외치면 일제히 웃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나마스테”. 의자와 책상을 받아주고 약품들은 옮겨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동 진료 때 위생교육에 필요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모여드는 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케스와리에는 아직 TV가 없는 집이 더 많아 이런 영상을 보는 기회가 많이 없는 듯합니다. 아직도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고 흙먼지에 맨몸으로 뒹굴며 생활하는 아이들. 뜨거운 여름에도 노란 콧물을 달고 살고, 얼굴뿐 아니라 온몸 여기저기에 팍팍이나 있고 때로는 종기가 되어 끓고 있는게 별거 아닌 일상이 되어 있는 아이들. 서로의 머리에서 놀이 삼아 이를 잡아 주고 맨발로 뛰놀다 발에 가시가 박히면 옷에 꽂혀 있는 옷핀을 빼서 스스로 빼내는 아이들.

“

이동 진료 때 위생교육에 필요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모여드는 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사이 영상물을 보여줍니다. 다른 영상물(만화)을 보여 달라고 할 때는 마음이 흔들려 가끔은 보여주기도 하지만 위생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20명 넘게, 30명 가까이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 초집중하여 화면을 보는 아이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깨끗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아직은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작은 씨앗이 되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영상에 빠져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자와 책상이 놓이고 3개의 약 상자 통을 놓고 접수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인지 한가롭게만 보이던 마을은 사람들로 넘쳐 납니다. 긴 줄로 소란스럽거나 준비해 간 약이 떨어져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가하게 환자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더위가 가고 우기가 되면 중기가 많이 생겨 몸 곳곳에 부스럼이 생기고 끓는 경우 열나고, 오염된 우물물로 배 아픈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나이든 분들은 다리,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은 바르는 약 정도로 지바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병원까지 멀어서 오지 못 하는 사람들과 병원비가 없어서 일반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둥게스와리* 주민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내 것이 아닌 것을 같이 나누어 쓰면서 생색을 냈다는 생각에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나가게 되는 이동 진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만큼 저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 소통도 재산

지붕에서 떨어져 계단 위에 만들어진 이동진료소까지 채 오지 못 하는 환자는 거의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며칠이 지난 아주머니도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통제를 드리고 뼈가 부러진 거 같으니 큰 병원에 꼭 가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지만 많은 돈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팔꿈치가 심하게 부어 있고 빠지고 돌아간 듯한 팔을 달랑거리며 다니면서도 아프지 않은지 곡식 고르는 일을 하고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인도에 온 지 8개월여 시간이 지나니 마을 풍경이 익숙해지고 더러움이 익숙해지고 가난이 익숙해집니다. 집에 물이 없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맨발로 종종거리며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여자애를 웃으면서 보게 되고 돼지가 떼 지어 몰려다니는 게 낯설지 않고 이제 소똥을 보면 재산(말려서 연료로 씀)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삶에 조금씩 젖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함을 넘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같이 나누어 쓰면서 생색을 냈다는 생각에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나가게 되는 이동 진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만큼 저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동계스와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잊고 있었던 가슴 아픈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 마을리더 수련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리더들과 함께 캘커타에서 수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지 NGO인 세바켄드리에 방문하여 다른 단체의 마을개발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동게스와리 마을 청소

가을 사파이 콘 까레가?(마을 청소 누가하나요?)

함까렝게!(제가 하겠습니다) 함까렝게!

동게스와리 15개 지역 마을. 청소 쉬람단(함께하는 노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쓰레기를 줍고 핸드펌프 주변 수로를 청소하였습니다.

청소를 마치니 다들 가볍고 기쁜 표정입니다.



### 상처 소독 중인 환자

전기 감전으로 두 개의 손가락과 가슴 쪽에 살이 패인 상처를 가지고 두 달 전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취도 없이 치료하는 데 아프다는 표현이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어서 손가락의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저 체중아 지원

올 3월부터 시작된 저체중아 지원이 11월 2일 6차 지원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을을 찾아가서 키와 몸무게를 재고 지원 단계를 정했습니다. 600명의 아이들 중 8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6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을 하면서 다시 키와 몸무게를 재고 보니 5달여 동안 2~3센티의 키가 자라고 3kg 몸무게가 늘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지원되는 영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신생아 등록증

지바카 병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동계스와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신생아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지 3일 만에 오기도 하고 두 달이 지나서 오기도 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집안의 몇 번째 아이인지 세세히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체중아 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댄스도 척척! 문제 없어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힌디,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과목 외에도 특화수업을 진행합니다. 컴퓨터, 댄스 수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태권도 수업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맹 탈출을 넘어서 숨겨진 재능을 하나씩 돌씩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꾸려지고 있는 수자타아카데미에 부듯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해피 디빠왈리~**

한국에도 풍성한 가을에 추석이 있듯이, 인도에도 디빠왈리 푸자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미타이(인도의 단과자) 등 이런저런 음식들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특히나 이 기간에 집안 단장을 깨끗이 하는 특색이 있다고 하네요. 수자타 아카데미의 유치원 마을 교사들에게 아따(인도 밀가루) 20kg과 티셔츠, 미타이 등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 틈새이야기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태어난 세 마리 강아지들.  
세상 모든 어린 생명도 이렇처럼 평안하길...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12

2017 NOV

# 산 넘고 물 건너 오지마을에 가다

2017년 교육지원 활동 시작



필리핀JTS는 오지마을에 학교를 건축한 이후, 현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 539명 학생과 27명 선생님들에게 교육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글쓴이 필리핀JTS \_ 김형준 활동가





### 3일에 걸친 교육물품 지원 여정

11월 6일 JTS 센터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하여 무슬림 지역인 마긴다나오 주 술탄 쿠다랏 군에 위치한 타푸칸 학교까지 6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타푸칸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복도 지원하는데 이곳 무슬림 지역의 여성들 복장은 긴팔, 긴치마를 입는 문화라 필리핀 다른 지역 학교들에 제공한 것과 같은 교복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복을 입혀보니, 짧은 교복에 대해서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교복을 갈아입은 남녀학생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들도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11월 7일 키타스, 블루안, 파곰퐁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오전에는 흐린 날씨였지만, 운 좋게 비는 오지 않았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교육지원물품으로 배구공과 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키타스 학교 리차드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사비로 작은 배구네트를 구매하여 잔디밭 위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물건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블루안 학교에 지원물품을 전달한 후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물품을 다 전달하고 배로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를 가리기 위해 준비해 간 우산과 물품포장으로 사용한 비닐을 사용하여 비를 피하면서 복귀하였습니다.



11월 8일 블루안, 사라와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곳에서 30분가량을 기다렸지만, 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다린 파곰퐁 여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하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학교 2곳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생님들이 제안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30여 분정도 이동하여, 파곰퐁 학교 건너편 강가에 도착하고, 배로 이동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3시간 넘게 걸으며 여러 개의 작은 냇가를 만날 때마다 신발을 신고 벗고를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도착한 학교에 교육물품을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

어떤 선생님은 10km, 멀리는 15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덥고, 비 오는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식재료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 오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

오지의 학교들은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식수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까지 정수된 물을 사 나르든지 내리는 빗물을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워 주변에 불일을 보거나 강가 근처의 학생들은 그곳에서 불일을 보고 가까우면 강물을 떠와서 번기에 부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보통 1주에 한 번 다녀온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10km, 멀리는 15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덥고, 비 오는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식재료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첫날 미리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수를 받았지만 당일 학교에서 받은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 준비해간 추가 물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숙소에 복귀하여 다음날 지원 갈 학교 선생님들과 연락하여 다시 인원을 받고 밤에 물품을 포장하여 차질없이 학용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학생등록기간이 한달이 되어 이동이 많아 생긴 현상입니다.

### 교육물품 지원을 마치며

몇몇 학교에는 결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일하러 멀리나가 동생을 돌봐야 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일하러 가는 경우, 추수할 때는 일손을 돕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맹 퇴치가 빈곤 퇴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와 닿았습니다.



“

추수할 때는 일손을 돕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맹 퇴치가 빈곤 퇴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와 닿았습니다.



식수와 전기도 없는 필리핀 오지의 불편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교육 물품을 지원받는데도 가는 곳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반겨주고 물품을 받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니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작은 정성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루안 학교 텃밭 지원**

다물록(Damulog)지역은 주로 옥수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옥수수 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으로 옥수수 찐 것과 소금을 먹습니다. 그나마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 영양실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TS는 학교 텃밭 가꾸는 일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물록(Damulog)지역 블루안(Buluan)초등학교에 학교 텃밭 용 씨앗 7종 총 700여 개의 씨앗을 지원하였고 학부모들은 학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가지, 오クラ, 땅콩, 호박, 여주, 콩 등의 씨앗으로 모종을 만들었습니다. 채소가 잘 자라 학교 급식에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새로운 학교 건축 예정지를 찾아서...**

**(산 페르난도 San Fernando)**

JTS에서 건축한 까나안(Canaan), 키다마(Kid-ama)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셨던 에드윈 씨의 추천으로 학교가 없어 마을 회관, 교회 심지어 닭 싸움장을 학교로 빌려서 사용하는 마을 등 7 곳을 답사하러 산 페르난도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인근 학교에서 임시로 배정받아 먼 곳까지 출퇴근하느라 힘든 상황인데도 저희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열렬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JTS 사업 원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마을 리더의 진지한 표정에서 얼마나 이분들에게 간절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새로운 학교 건축 예정지를 찾아서...(까방라산Cabanglasan)**

까방라산은 JTS 센터가 위치한 부끄드논 주에서 가장 가난한 군입니다. 오토바이로 1시간 산에 올라가야 하는 마을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벌목회사들이 이곳에 있을 때는 마을이 200가구가 넘었는데 나무를 많이 채취하고 나서 떠난 후에는 황폐해졌답니다. 이곳에 임시 학교가 생기고 선생님이 파견되자 산속에 흩어져 살던 원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해서 마을 곳곳에 집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라원(Alawon)초등학교 보수작업**

알라원 학교는 2005년에 세워졌습니다. 도중에 선생님 파견이 되지 않아 학교 운영이 어려웠으나 2016년에 정규 교사가 1명 파견되면서 다시 개교했습니다. 올해 알라원 학교는 임시 교사가 1명 더 파견되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학교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다투(Datu,부족장)과 리더, 가장들과 아낙네, 청년들, 아이들까지 모여서 마을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 보수 일정과 자재 배달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물이 새는 교실 천장과 세월이 흘러 낡아서 위험한 외부 난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 운영되고 있는 교실에 칠판을 제작했습니다. 10여년 전 다 함께 학교를 지었던 마을 사람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보수작업을 예정보다 무려 일주일 이상 일찍 끝냈습니다.



**키한아이(Kihan-ay) & 콘솔라시온(Consolacion)교사숙소 보수 및 신축**

한 번 비가 내리면 땅이 질퍽거려 사륜구동 차가 아니고는 마을로 진입하기도 힘든 *키한아이(Kihan-ay)*와 *콘솔라시온(Consolacion)*. JTS는 2016년 *마놀로 폴티치(Manolo Fortich)* 군과 협력하여 *키한아이*에는 3칸의 교실을 *콘솔라시온*에는 2칸의 교실을 지었는데요. *키한아이*와 *콘솔라시온*에는 각각 2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역 여건상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주중에는 마을에서 지내야 하지만 현재 마땅한 숙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JTS는 안정적인 교수 환경 마련을 위해 2017년 하반기 프로젝트로 교사숙소 신축 및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키한아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집을 고치고, *콘솔라시온*은 교사숙소를 신축합니다. 지금까지 *마놀로폴티치* 군청의 엔지니어와 함께 교사숙소 부지를 답사하고, 사용하던 집을 교사숙소로 기증하기 위한 매매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 곧 자재를 배달하고, 보수와 신축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  
2017 NOV • DEC



**다물록 키타스(KITAS), 파곰퐁(PAGUMPONG) 초등학교 학교 보수**

*다물록(Damulog)* *물리타(Mulita)* 강을 보트를 타고 들어가면 JTS가 건축을 지원한 키타스와 파곰퐁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세미콘크리트로 지어진 학교인데, 당시 외벽 페인트질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목재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등 건물 노후현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키타스 학교 교사와 마을리더의 요청으로 보수를 진행하기로 했고, 지난 9월 말부터 11월초까지 학교 보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천정이 없어서 비가 오면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심해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 천정을 설치하고, 지붕에 비 새는 곳을 수리하고 벽, 창문과 문을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했습니다. 바닥 시멘트가 깨진 부분도 수리했습니다.

키타스의 경우,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7개 학년이 교실 2칸에서 임시 칸막이를 놓고 합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정 칸막이를 설치해서 4칸으로 분리해서 교실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여전히 합반 수업을 해야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조용한 상태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수공사이지만 마을 리더와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진행되기도 했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전에 건축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난민, 로힝야족

인종청소의 끝은 어디인가

세계적으로 박해를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라고 표현되는 로힝야족은 현재까지 80만여 명이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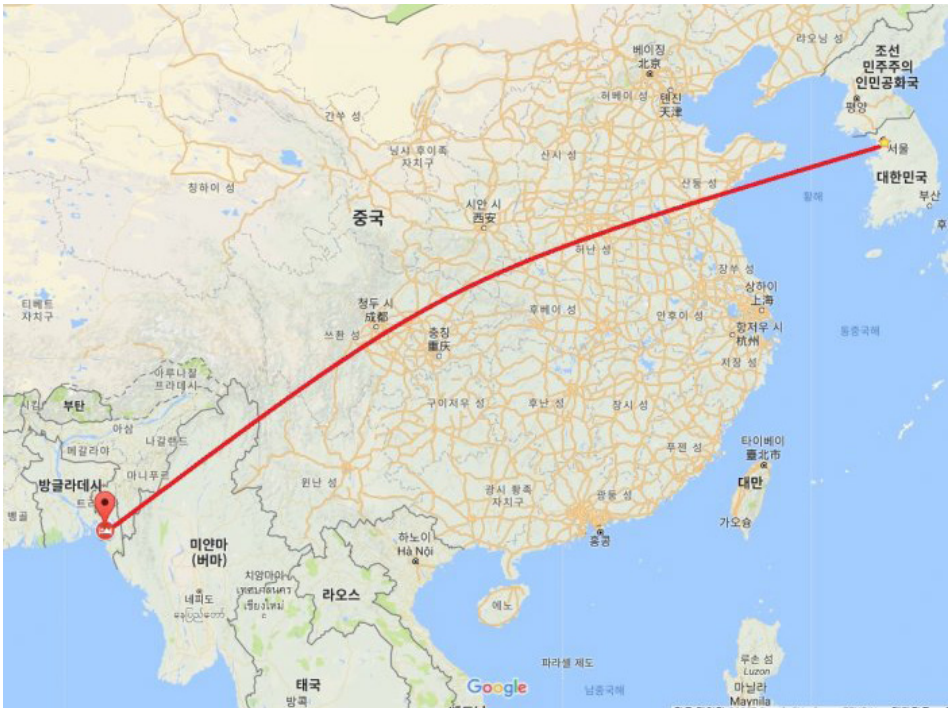
글쓴이 한국JTS \_ 윤민아



## JTS! 방글라데시로 떠나다

로HING야족은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 *방글라데시*로부터 강제이주된 소수민족입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인 이들은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8월 로HING야 무장단체ARSA(아라칸 로HING야 구원군)가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하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 군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JTS에서는 INEB(국제참여불교연대) 연대활동으로 로HING야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한국JTS는 JTS 활동가를 *방글라데시*로 파견하였습니다.



JTS 활동가는 *치타공*에서 *방글라데시* INEB 이사(아티쉬 디팡카 소사이어터 단체장) 일행을 만나 로HING야족 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활동가는 *치타공*에서 *콕스바자르*까지 4시간, *콕스바자르*에서 난민촌까지 다시 1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난민촌에 도착하기도 전, 도시의 혼잡함과 먼지, 쓰레기더미 그리고 맨발로 살아가는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난민촌은 얼마나 더 열악할지 느껴졌습니다.

“

첫째 물건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둘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므로 난민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물품을  
선정한다.  
셋째 물품 배분을  
직접 한다.

### 녹록지 않았던 지원 과정

지원하기 위한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난민촌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물품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던 중 방글라데시 단체의 담당자로부터 난민촌에 외국인은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현재 국제적으로 지원물량 단위가 커서 JTS 같이 작은 단체가 지원한다고 일일이 직접 배분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모두 밟았는데 JTS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JTS의 지원 원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물건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둘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므로 난민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물품을 선정한다.

셋째 물품 배분을 직접 한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철수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호지원소 소장과 만났고, JTS 활동가가 난민촌에 직접 들어가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 only 생존

JTS는 쌀과 분유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호지원소 소장은 난민촌의 규모에 비해 화장실, 하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우려된다며 모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24일, JTS활동가는 kotipalong camp의 로HING야 난민 700가구(3,500여 명)에 쌀 15kg, 모기장한 개씩을 배분했습니다.

물품을 지원받으러 온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직 생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쌀을 받아가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생존밖에 없었습니다.



지원 물품을 받기위해 끝없이 줄선 난민들

“

오직 생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쌀을 받아가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생존밖에 없었습니다.

난민촌 안은 땅 자체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지역이었는데 길가에 있는 집들은 그나마 지대가 높은 곳이라 다행이었지만 안쪽 집들은 지대가 낮아서 아래로 축 처지는 땅이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 강간과 끔찍한 상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혹했던 현장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살아있지만 무기력하고 막막하기만한 표정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15kg 쌀을 받아가는 모습



무기력한 노인



끝없이 지어진 천막 난민촌



### 불안하고 열악한 난민 캠프

미얀마에서는 하루에도 2만 명씩 난민들이 넘어오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다시 미얀마 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천막 난민촌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민 중에 8만 명이 임산부, 고아들이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힝야 난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비닐 위에 이불도 없이 잠든 아이

# 애광원 친구들의 가을 나들이



애광원은 거제도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교육 시설로, 2003년 태풍 매미가 덮쳤을 때 무너진 시설물들을 JTS가 나서서 복구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애광원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매해 1년에 두 차례씩 봄 가을 나들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JTS 경남 거제지부 \_ 강민정 활동가

지난 11월 10일 유난히 햇살이 환하고 맑았던 날 아침. 쌍계사 주차장에 먼저 도착한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봉사자들은 반가운 얼굴로 애광원 친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포옹으로, 악수로, 서로의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봉사자들을 포함해 90명은 귀에 송수신기를 꽂았습니다. 이 송수신기로는 이곳저곳에 대해 법륜스님이 설명해주시는 말씀과 이따금 흘러나오는 애광원 친구들의 노랫소리로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쌍계사의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9층 석탑까지 이동하며 짝지와 손 잡고 줄 지어 걷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9층 석탑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모두 환히 웃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애광원 친구들의 보행에 유독 신경 써야 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짝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인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28

2017 NOV · DEC



“

쌍계사의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9층 석탑까지 이동하며 짝지와 손 잡고 줄 지어 걷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  
‘애광원 친구들에게  
이리 배우고 얻어가게  
되는구나.’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쌍계사에서 내려와 맛있는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메뉴는 참게가리장.

애광원 친구들이 먹기도 편하고 영양, 안전, 맛을 고루 갖춘 메뉴였습니다. 특히 뜨거운 참게가리장을 미리 식혀둔 답사팀들의 마음 쓰미 더욱 정겹게 느껴지고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와서는 행복해하며 믹스 커피 한잔을 마시는 애광원 친구들을 보니 행복이 그리 큰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광원 친구들에게 이리 배우고 얻어가게 되는구나.’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하동 송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섬진강 모래사장 옆에 자리한 이 공원은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솔향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돛자리를 펴서 짝지와 함께 앉아 레크레이션을 즐겼습니다. 춤도 추고 짝지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함께 나가 손뼉도 치고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일정인 하동 북천 레일바이크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자연이 주는 평온함도 감상하고 서로 오순도순 정겨운 대화도 나눴습니다. 레일바이크 타러 가기 위해 타는 기차도 나름 좋았습니다. 두근두근~ 레일바이크 탑승! 열심히 페달을 돌려 기찻길을 달리며 시원한 바람, 자연과 하나가 됐습니다. 터널 안에 꾸며놓은 사계절과 즐비하게 늘어선 작은 빛들은 함성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와~~ 우린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신났습니다.

“

두근두근~

레일바이크 탑승!

열심히 페달을 돌려

기찻길을 달리며

시원한 바람, 자연과

하나가 됐습니다.



해는 누엣누엣 지기 시작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짝지의 비빔밥을 먼저 비벼서 먹여주고 본인 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짝지의 얼굴을 보며 싱글 생글 서로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하루가 이리도 빨리 갑니다. 봉사는 행복한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JTS, 서울시설공단 업무 협약식**

10월 16일 오후 2시. JTS와 서울시설공단의 '해외빈곤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구촌 나눔 운동 실천'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JTS에서는 공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진행 및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봉사자 모집 등 해외봉사 시행 및 후원을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봉사 파견 활동으로는 인도에서 수자타아카데미와 지바카 병원의 넓은 전기시설 보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2월에 사전팀이 인도로 출국하여 어떤 부분의 보수가 필요한지, 한국에서 준비해가야 할 자재나 장비는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외봉사자들의 활동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레파스 모으기 프로젝트**

“집에 잠자고 있는 크레파스를 모아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이미 자랐지만 포장도 풀지 않은 크레파스가 책상 서랍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마침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교 파트의 김윤미 활동가가 크레파스를 보내달라는 제안과 만나 시작된 ‘크레파스 모으기 프로젝트’. 크레파스가 530세트, 색연필이 110세트가 모여졌습니다. 겨우 1달여간의 모인 양을 보니 JTS본부 활동가들은 흐뭇하고 고맙습니다. 즐거워하며 그림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소식지에 담길 날을 기대해봅니다.





### 두북 어르신 목욕 봉사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코스모스를 보니 이젠 가을입니다. 9월 29일 동래지부에서는 두북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목욕을 도와드리고, 집안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목욕 후, 꽃보다 예쁜 할머니들이 가을꽃 코스모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느끼셨습니다. 활동가들은 마른 고추도 다듬고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함께한 마음이 맑고 예뻐했습니다.



### 다문화센터 나비장터

10월 29일 나비 장터에 봉사자 17 명이 참석하여 많은 물건을 팔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인 데이라고 인도네시아 악기와 춤들이 선보였고 아마추어 가수의 인도네시아 노래도 불러 음률이 나와 잘 맞아 듣기 좋았습니다. 안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다문화인들의 문화경연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문화에 한국 탈이 등장하고 양국의 국기가 같이 내걸리고 대한민국 국기와 스리랑카 국기를 같이 들고 행진합니다. 안산은 이렇게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문화인 전등사 나들이**

11월 5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 전등사 가을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다문화인 80여 명, 봉사자 약 1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태국*과 *스리랑카* 스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등사를 둘러 본 후 삼랑산성 둘레길을 걷고, 레크리에이션을 하였습니다. 또 각 나라별로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10월 22일 *스리랑카* 카티냐 행렬 있는 날 강한동 선생님께서 무료 한방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밖의 다문화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 이연우 변호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7시  
 무료 한방진료 : 박석규 선생님  
 월 2회 토요일 오후 5시 ~ 9시  
 한국어 교실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b>인도</b>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이미경, 김민정, 이정미
<b>필리핀</b>	안병주, 김상훈, 서은실, 허유진, 박시현, 박은혜, 한혜련, *김형준



이 글을 짧은 생을 이웃과 나누며 잘 살다 떠난 친구의 영전에 올립니다.



양로원에서 공연 봉사 중인故 서영석님



故 서영석님

저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서영석.  
 영석이는 평소 강력한 해피 바이러스의 소유자로 나이를 초월해 모든 이의 귀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친구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날마다 웃게 해주던 정 많고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영석이는 마흔두 살의 젊은 나이에 임파선암으로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13년 2월 라이프플래너 일을 하며 기부보험이 있는데 수익자를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JTS를 지정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달 후원금 대신 기부 보험금을 내고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수익단체에 후원된다며 아주 기쁘게 설명을 해줘 저도 나름 계산을 해보고 함께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형의 평상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동생에게서 선하게 살다간 영석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석이는 따뜻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잘 간직하며 봉사하는 삶이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故 서영석님은 기부보험금 일천만 원을 JTS에 기부하셨습니다.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일시후원금 (2017. 9. 01. ~ 2017. 10. 31.)

## 북한

김경미55398 김경미002338 김민호 김선호 김성남 김수영 김순애 김승희 김윤정 김조의 김종택 김진환 김태경 나경주 류성용 박병창 박완임 백경화 북한 서태현 신재영 신재영 신종섭 안선영 안선희 유소영 이요한 이은경 이주현 이진일 전소은 정지원 조재룡 차중훈 한성욱 허대영

## 인도

권용미 김경란 김선호 김승희 김연희 김은수 김은주 김재욱 김조의 김주철 김진환 나희원 백경화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안영민 안현숙 이은경 이주현 이진일 임보경 전소는 전용민 정백기 조주현 차중훈 최원익

## 필리핀

곽도순 김경미 김도환 김민호 김승희 김조의 김진환 나경원 딱화네 백경화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이은경 이주형 이진일 전용민 정백기

## 전체

(재)꿈나무가구 1737차 설미숙 6429 BRI ANK IM BRIAKIM 감사합니다! 강동농협고객 강미란 강민경 강상임 강선경 강성희 강수정 강준숙 고경민 고옥화돼지 고조갑순왕생극락 공연표 곡진호 곡창호 권건우 권경우 권영숙 권진옥 금삼승민승필 기부금 기정임 김경만 김경미 김경희 김광남2315 김광호 김기호 김남희 김대광 김덕영 김덕주 김도연7987 김도하 김동 김명규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민정(지니모아) 김민호 김민호 김병환 김보경0565 김보라 김봉덕 김선정0543 김선주 김설화 김성숙 김성자 김소희 김수연 김수윤 김승민 김승희 김여진 김연숙 김연옥 김영미 김영영영가 김영주9792 김옥자6120 김용미 김은하 김유경 김은숙 김이경 김인영 김정권 김정미 김정아 김정재 김정화 김조의 김종률 김중욱 김지숙 김지식 김지이 김지훈 김지희 김진애 김진환 김춘희 김한별3564 김해수 김해영 김화영 김훈 김희순7629 나무대비관세무 나연우 나호연합격감사 남희창7398 노신섭 노하진 달성jts거리 대전/이부열 대한불교조계종운주선원 도경희 도담이 동래법당저녁나비장터 딱화네 류수진 맬번JTS기부금 명선해양산업주 모두성불하세요 목인방(김홍인) 문규복6398 문덕권 문서준 문이전6488 문정숙고성돼지 박정섭 박계만 박규흠 박금희 박기옥 박동수 박미라 박미혜 박문남 박상길 박상철 박세현 박순양 박완임 박윤정 박은숙 박인원 박정숙 박정자 박정호 박주하 박진현 박현진 박화자 박희달 반미정 방현희 배동규6047 배병문2141 배선화 배재윤 배정기 백경화 백은숙 백출23기 백출31기 변동해 변동해 불경전 서말선 서승희 서영옥 성불하세요 성윤희 손연경(강동농협) 손영수 손현진 송성완 송정열 송중수 시드니JTS기부금 신동근 신병남 신비로운 여인 신승희순천 신현희 신영자 신영주영가5872 신은영 신재영 신종섭 심인숙 심효은 아베님극락왕생 안병욱 안병주JTS 안산 우성3542 안산기명윤연숙8351 안산기명황정연2439 안산김민식 안자현 안정현 안종문 안차애 안창순 양서윤 양승준 양윤건 양윤경 양평이나경 엄인용 오윤경 오진계 오혜령 우민정 우성구 우하연 원철웅 원호연 유경호 유미란 유병화 유승열 유승자 유애경 유정훈 윤경미 윤경옥 윤미경 윤미숙 윤병은(9488) 윤승현 윤여정 윤연숙 윤정환 윤지연 윤형두 은지용 의창경전반나눔장터 이광주 이귀숙 이남기 이동화 이미순1202세대문 이미지 이미향 이새미나 이성봉5603 이세환 이수동 이숙 이슬이 이서훈 이영국 이영자 장진희 이영화 이옥남 이요한 이용재 이원성 이원형 이운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희 이재능 이재성 이정건 이정순 이정숙 이정여 이정옥 이제순 이지승 이지연 이지윤 이진실 이현숙6019 이형원5434 이해련 임란숙6917 임병규 임서영 임종덕 임종호 임준성 임진선 임희태 자카르타 장경희 김현채 장세영 장태균 장현련 전만식 전용민 전체사업 정경아 정귀옥망자여산승씨 정나영 정도윤 정미경 정백기 정서영 정소영 정용한 정인규 정인화 정일상9168 정지화 정도법당(군포법당) 정현우 정혜숙 제나앤코후원금 제이순 조성규조성현 조수미 조아연 조영미 조영자 조정 죽사 지세영 지승환 차지은 최경숙 최경자 최규희 최근대2650 최동년 최민영 최선영 최점석 최정음 최정통 최준현 최현미 최현준 태국아람사찰안산모임 평화를위해 하동법당 한승운 한신규 한원희 한중호 한현옥 한혜숙 허은자 허환숙 현동영 홍다연 홍지영 환전-서초법당 5유료 황소영 황영애 황재영 황정연 황준성 후원 후원금

## 미국JTS 후원금 (2017. 9. 01. ~ 2017. 10. 31.)

###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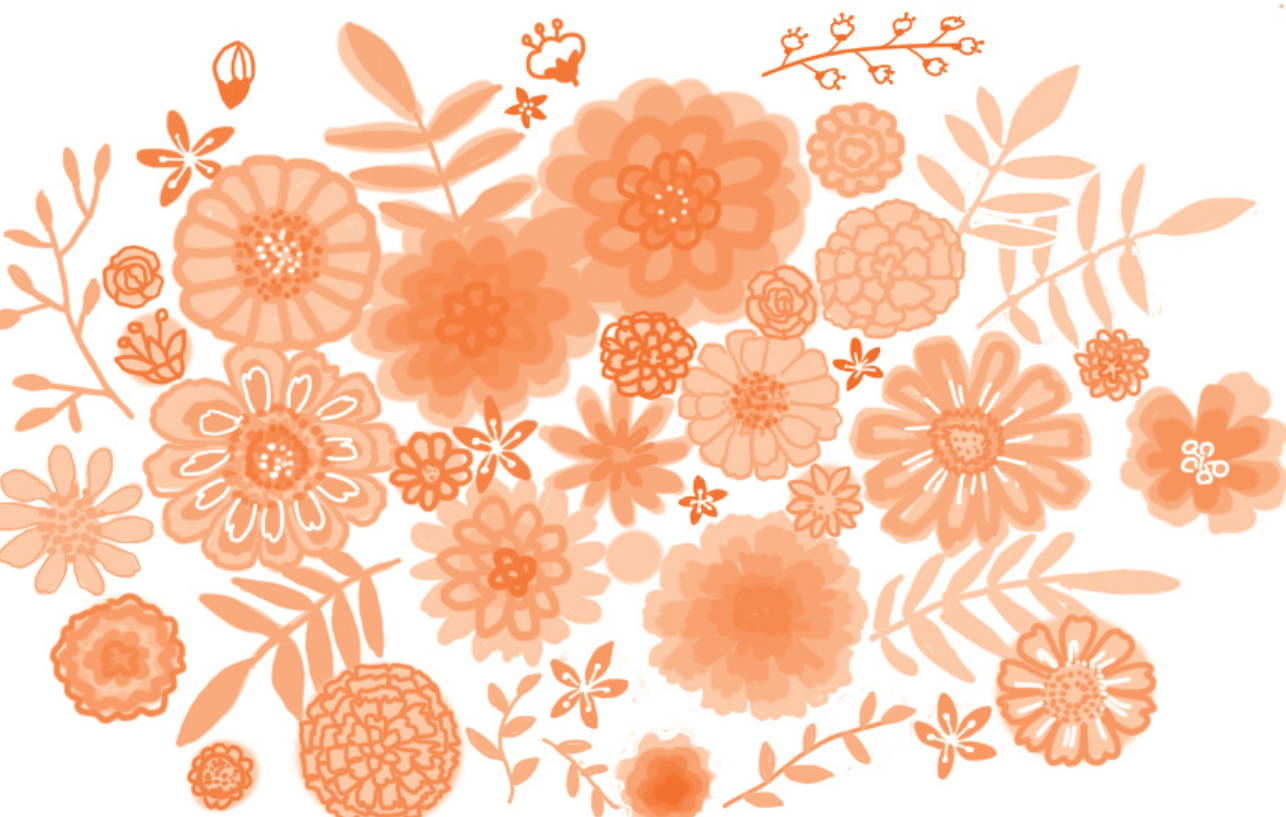
배성구/나경선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시애틀 법당, 시애틀 법당 유수영 유승묵 이동영 이동우 이두라 이상섭/용수진 이영국 이주희 정호선 주상휴 타라 하주홍 Catherine Cho Douglas Mayo, Susan Long Hyang Chu Hyunhee Kang Irene Shim JJ Families LLC Lauren Carre Michael W. Yang Sokhee H. Rubens Stephanie Lee Union Square Cleaners

### 10월

김미경 김재명 김지현 김지현 김학노 무기명 박경배 박승용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안종식/안미영 오숙자 유수영 유승묵 윤광미 이동영 이동영 이두라 이상섭/용수진 이선영 이영국 이재철 이주희 이지훈/유주영 이혁 임선희 휴스턴 열린법회 Catherine Cho Hyang Chu Irene Shim JJ Families LLC Katie Lee Keith Conner Kyung J. Kim Lauren Carre Linda Davies Michael W. Yang Stephanie Lee

### 후원인의 소리

"기부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JTS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꾸벅)" / 워싱턴 이영국



# 나눔저금통 현황 (2015. 09. 01. ~ 2015. 10.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b>강릉법당</b> 1회	<b>김해법당</b> 1회	<b>반여법당</b> 1회
<b>강서법당 무기명</b> 1개	<b>내서법당 무기명</b> 2개	<b>방어법당 무기명</b> 17개
<b>경산법당</b> 조계량, 박영미	<b>노원법당</b> 윤영주, 이재향 <b>무기명</b> 3개	<b>부천법당</b> 3회
<b>경주법당</b> 권신옥, 김병건, 김선영, 손명숙, 이위선, 한애자	<b>달성법당</b> 김명희	<b>부평법당 무기명</b> 2개
<b>계룡법당</b> 정미자, 정찬영, 송준섭, 박홍자	<b>당진법당</b> 김연옥, 이한수, 이형주 <b>무기명</b> 1개	<b>분당법당</b> 1회
<b>고성법당</b> 문정숙	<b>대구법당</b> 오기훈, 유태숙, 이세미, 한정우 <b>무기명</b> 7개	<b>사천법당</b> 박수경, 문미양, 한은경 <b>무기명</b> 7개
<b>공주법당 무기명</b> 4개	<b>상가</b> 각산동포인트마트, 각산OK포인트마트, 율하동k식자재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2개, 지산동나이스마트, 지산동테레사소버센타, 지산동ok포인트마트	<b>사하법당</b> 김영순, 최성욱, 김웅, 김은숙 <b>무기명</b> 7개
<b>관평법당</b> 신원식, 이외생, 한성윤, 홍지형	<b>대연법 무기명</b> 11개	<b>상주법당</b> 김달수
<b>광명법당</b> 김인숙, 정진아, 노보경, 장효숙, 김재경, 신연희, 엄덕민, 임금빈, 김옥경 <b>무기명</b> 3개	<b>덕양법당 무기명</b> 2개	<b>서면법당 무기명</b> 6개
<b>구리법당</b> 무기명 3개	<b>도봉법당</b> 2회	<b>서초법당</b> 강현희, 이은남, 박이연 <b>무기명</b> 18개
<b>구미법당</b> 장금림, 김명숙 <b>무기명</b>	<b>동래법당</b> 노영옥, 임현훈, 이경미, 김청자, 황금순, 남산초, 김예진 <b>무기명</b> 18개	<b>서현법당 무기명</b> 2개
<b>군포법당</b> 2회	<b>상가</b> 유니베라	<b>성동법당</b> 1회
<b>권선법당</b> 1회	<b>동작법당</b> 1회	<b>성서법당</b> 김미경, 이영미, 김도혁, 오경우, 이태훈, 조선연, 김도혁 <b>무기명</b> 1개
<b>금정법당</b> 문혜숙, 송세술 <b>무기명</b> 2개	<b>마산법당</b> 천영희	<b>세종법당</b> 1회
<b>기장법당</b> 무기명 1개	<b>마포법당</b> 2회	<b>수원법당 무기명</b> 2개
<b>김천법당</b> 1회	<b>목포법당</b> 남선진, 장해자, 손지원	<b>순천법당</b> 무기명 4개
<b>김포법당</b> 무기명 2개	<b>밀양법당</b> 2회	<b>안동법당</b> 2회
		<b>안양법당</b> 박숙현



**양산법당**

이복순, 이강인, 김충균, 백길남  
무기명 1개

**양평법당** 이나경, 조혜원

**영주법당** 박동욱

**영통법당** 1회

**옥교법당**

김재숙, 윤나은, 박은선, 이도경, 송효미,  
송충간, 정광옥, 김종필  
무기명 2개  
상가 한양스토아

**왜관법당**

김심교  
상가 나이스마트송오점

**울산법당**

박봉규, 임채란, 강정미, 권정순, 박채윤,  
무기명 3개  
상가 오쿠달 성안점

**원주법당** 이영순

무기명 8개

**은평법당** 김현근, 손준호, 장재희, 최인자

**의정부법당** 1회

**의창법당** 이돌남, 구자흥, 윤정환

**인천법당** 심은아

무기명 4

**일산법당** 무기명 10개

**장유법당**

김기원, 이병곤, 김수아  
무기명 5개

**정읍법당** 박진숙

**제주법당** 이연옥

무기명 1개

**제천법당** 1회

**진주법당** 무기명 17개

**진해법당** 무기명 2개

**창원법당** 무기명 7개

**청주법당**

박세준, 김영경, 이혜숙, 유민선, 김시순,  
고정미, 박순임, 서미숙, 김을성, 김지현,  
김순백, 이규화, 권소영, 김혜숙, 이연옥,  
이진희, 신진옥, 박자영, 제영해, 육순자,  
김동윤, 이미노, 김선숙, 최복규  
무기명 1개  
상가 청주정보회, 한국조명

**통영법당** 2회

**파주법당** 1회

**평택법당**

김용숙, 송계순, 손지혜, 이승희, 한지희,  
김수연, 박수자

**해운대법당**

한지혜, 송미경  
무기명 12개  
단체 재송여중 1학년 4반

**홍성법당** 김미경, 김완숙, 이상자

무기명 1개

**화명법당** 1회

**홍덕법당**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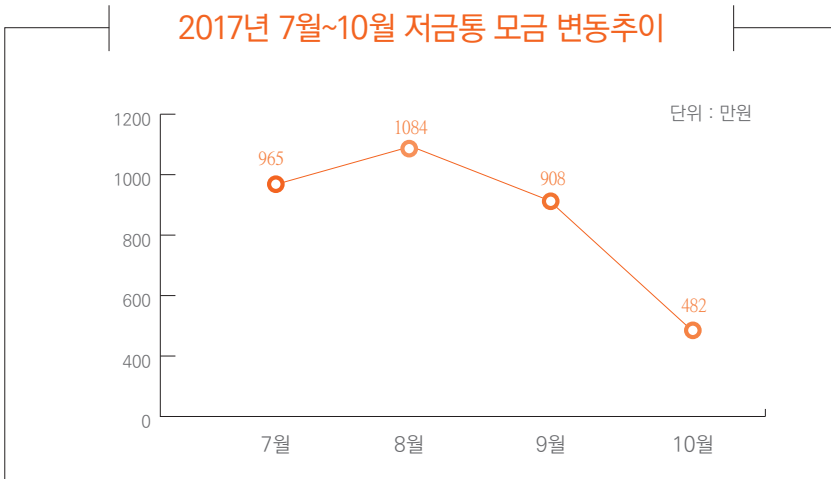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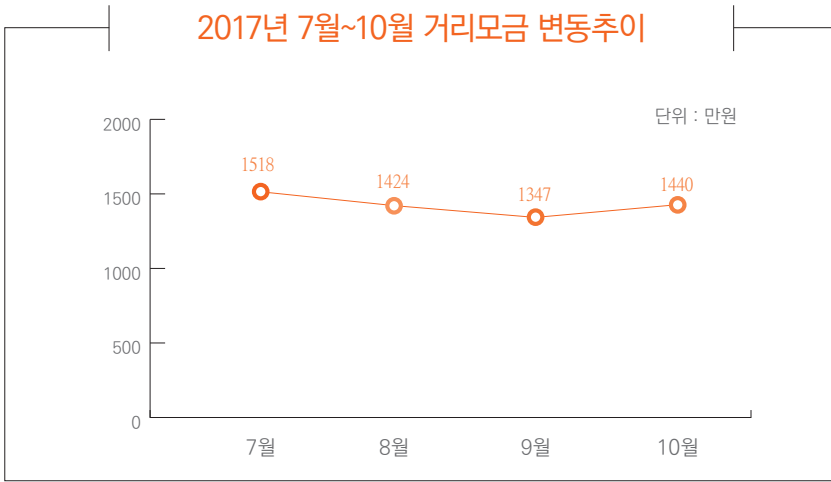
**기타지역**

고화옥, 김선정, 김정아, 비전고 학생 JTS  
저금통

**거리모금 현황**

(2017년 9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강남 30,500 강동 226,850  
강릉 133,300 강북 139,350  
강화 56,680 거제 539,740  
거창 71,500 경기광주 99,300  
경산 104,190 경주 945,305  
계룡 84,800 고성 89,720  
관악 166,800 광명 184,660  
광주 296,480 광진 29,050  
구리 251,310 구미 584,960

군포 251,450 금정 169,220  
기흥 259,430 김천 224,600  
김포 95,050 김해 411,710  
남양주 239,340 내서 76,010  
노원 550,980 달성 216,400  
당진 316,200 대구 710,700  
대구남산 76,400 대연 234,900  
대전 256,650 덕양 41,500  
도봉 141,800 동대문 106,500  
동래 325,360 동작 66,500  
마산 331,680 마포 55,000  
목포 102,100 문경 115,100  
밀양 58,000 방어 70,000  
부사 75,550 부천 211,810  
부평 219,500 분당 185,220  
사천 369,170 사하 481,800  
상주 69,550 서면 267,500  
서초 995,260 서현 607,670  
성동 144,200 성서 377,330  
세종 416,890 송도 68,410  
송파 139,400 수원 231,800  
수정 259,140 순천 219,000  
시흥 222,000 신서 55,500  
아산 84,000 안동 283,650  
안산 139,480 안산센터 129,470  
안성 53,700 안양 379,370  
양산 298,000 양천 117,860  
양평 381,900 언양 161,500  
여수 120,500 영주 405,850  
영천 151,500 영통 94,700  
육교 224,000 왜관 188,870  
용인 186,000 울산 548,020  
원주 166,430 은평 94,850  
의정부 361,860 인천 383,590  
일산 190,050 장유 98,100  
전주 323,000 정토 53,610  
제주 170,970 제천 86,900  
종로 293,480 종량 78,000  
중리 207,200 진주 666,310  
진해 179,750 창원 966,860  
처인 909,480 천안 140,500  
청주 176,850 태전 626,520  
통영 183,260 파주 244,300  
평택 149,450 포항덕산 602,090  
포항양덕 550,700 하남 83,800  
함안 264,730 해운대 348,630  
홍성 512,200 화명 249,950  
JTS거리모금 244,400



#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 한해 JTS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내일의 희망을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0

2017 NOV • DEC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원자

[대상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의사항] 12월 31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 확인하는 법

- ① JTS 홈페이지([www.jts.or.kr](http://www.jts.or.kr))에 로그인합니다.
- ② [정보수정]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신청] 항목에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아니오”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정보수정]을 클릭하고 “예”로 바꿔줍니다.
- ④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후원계좌에 입금 후 연락을 주지 않으신 분은, 12월 24일까지 전화 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 (02)587-8995 (운영시간 월~금 10:00 ~ 16:00)





## JTS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자원봉사활동

### 국내 자원 봉사와 함께 하세요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http://www.jts.or.kr>

JTS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연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 [ 한국JTS 투명한 기부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부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사용처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JTS 후원 문의 : 02)587-8995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나눔회원활동



###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